

## “약한 나라, 힘없는 교회가 세계선교 할 수 있다”

주안에교회(최혁 목사)가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21일(금)부터 29일(토)까지 한국의 대표적 선교사들을 강사로 선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선교 세미나에는 풀러신학대학 선교신학대학원 박기호 원로교수, 글로벌 선교 컨설턴트인 김 앤드류 선교사, 동서선교연구개발원 엄경섭 대표 등이 주 강사로 나서고 있다.

22일 오전 9시 30분에 박기호 교수는 ‘한국 독립 후 30년 동안의 한국 선교’란 주제로 강의를 시작했다. 박 교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했다.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면서 “12 사도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지라고 했다. 지금의 크리스천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선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흩어서 선교하게 하신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한국에 처음으로 오고 이후 아펜젤러가 도착했다. 1907년에 평양 신학교 졸업한 7명의 목사안수를 받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인 이기풍 선교사가 그 당시 말과 문화 달랐던 탐라

국(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최관환 목사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선교사로 보냈다. 1902년 한국 총회는 3명의 선교사를 중국 산둥에 선교사로 파송했다”라면서 “한국교회가 노회와 총회를 설립 후 다뤘던 가장 중요한 안건은 선교사 파송이었다.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나라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고, 막 조직된 어린 교회였다. 한국의 14개 도에 한 사람씩 보내도 선교사가 모자란 가운데 당시 타국인 탐라국에 선교를 보냈다. 약함 가운데 선교를 보냈던 것”고 했다.

박 교수는 “이전에는 돈으로, 군사적, 경제적인 힘으로 선교를 했다. 사실 약한 교회, 가난한 교회, 힘없는 교회가 선교를 할 수 있다.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의 선교는 침략, 돈으로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었다”라며, “애굽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게 했던 요셉의 경우 이민자, 유학생, 사업으로 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종으로 끌려갔다.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실현됐다. 당시 세계 강국인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 것은 전쟁 포로로 끌려간 이를 통해서였다. 신약에서도 바나바와 바울이 자비량으로 텐트



강의를 진행 중인 박기호 교수 ©기독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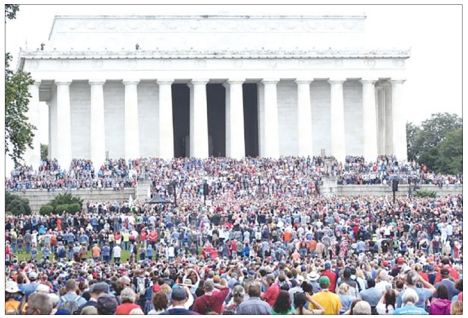
메이킹 하면서 선교했고, 빌립보 교회들도 현지 교회를 도왔다. 한반도 선교를 침략적으로 하지 않았다. 사도들은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강조하지 않았나”고 했다. 그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를 훈련시켰는데,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다. 믿음의 선진들은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선교지 결정을 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했다. 우리 힘으로 선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기호 교수는 한국 교회 선교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갔는데 그곳 선교 지도자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도움이 안 되니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선교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이 중요하다. 늘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현지인들을 대해야 하는데, 마치 구라파 나라와 같이 힘으로 하려고 해서 문제가 된다”라면서 “일체 치하에서 어려운 가운데 존경받으며 선교를 했는데,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였다”고 했다.

토마스 멩 기자

## “美 엘리트들 종교 편향 심각... 공적 영역 내 신앙 입증해야”



수만 명의 미국인들이 내셔널몰에 모여 나라를 위한 회개와 중보기도의 시간을 갖던 모습.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미국 종교자유연구소(Religious Freedom Institute)의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이자 연구 코디네이터 나단 버클리(Nathan Berkeley)

는 “현재 미국의 종교 자유 상황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혼합돼 있다”면서 “문화적 엘리트들의 종교 편향성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버클리 코디네이터는 CB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종교인, 신앙인, 기독교인들은 일종의 핵심 문화적인 이슈에서 잘못됐을 뿐 아니라 위협하고 심지어 편협하다’고 보는 문화적 엘리트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신앙인을 ‘해롭다’고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각이며, 종교의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며 “종교의 자유가 ‘보호되고 지지돼야 하는 기본적 인권’이 아닌, ‘해를 끼칠 수 있는 허가증’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주로 학계,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와 같은 여러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걸쳐 이러한 내러티브가 널리 퍼져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우리는 많은 영역에서 이러한 개념을 목도했다. 신앙인에 대해 적대적인 방식으로 전례투구하는 식이다. 많은 분야의 엘리트들이 기독교인과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법률이나 다양한 정치적 방식을 사용해 이러한 유해한 이데올로기를 포용한다”고 했다.

버클리는 “종교의 자유는 건강한 사회의 초석이며, 이는 다른 권리, 언론 및 결사의 자유 등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가 될 수 있다”면서 “법적인 수준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혼합적이나 전반적으로 ‘좋은’ 그림

이 있지만, 문화적인 세력은 금방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싸움들 중에서도 인간의 성을 둘러싼 치열한 수정헌법 제1조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방향은 결혼, 성, 가족 형성 및 기타 모든 것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진리라고 이해하는 것과 완전히 양립할 수 없다”며 “우리가 싸워야 할 실제적인 문제는 계속될 것이고, 원칙으로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 압력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는 신앙인들이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온전한 참여자가 되게 하는 원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인들은 온전한 참여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터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로프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연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023년 **대박**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 부터 Payment)  
 ◎ 전기료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제78주년 8.15 광복절 기념 감사예배**

어느덧 광복 78주년이 되었습니다. 8.15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겼던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은 날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념하며 제정한 대한민국 국경일입니다. 남가주 교계에서는 매해 전통적으로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주관 사업으로 광복절 기념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조국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염원하는 기념 감사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일 시 : 2023년 8월 13일(주일) 오후 4:30  
 ■ 장 소 : 나성영락교회 (박은성 목사 시무)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 강 사 : 박은성 목사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특별출연 : 소리엘 찬양사역자 (장혁재목사)  
 ■ 문 의 : (818) 399-2692 (총무 김창영 목사)

강사 : 박은성 목사 (나성영락교회)  
 특별출연 : 장혁재 목사 (소리엘 찬양사역자)

**제53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최영봉 목사**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 '2023 라크마 우정과 화합 콘서트' 튀르키예와 연대

8월 5일(토) 오후 7시 30분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

“대지진으로 수많은 희생자와 이재민이 발생한 튀르키예를 위로하고자 합니다.”

라크마 심포니 오케스트라 & 코랄(대표 최승호, 음악감독 윤임상 LAKMA Symphony Orchestra & Chorale)이 오는 8월 5일(토) 오후 7시 30분, LA 월트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우정과 하모니”를 주제로 튀르키예를 위한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에서 베르디의 ‘레퀴엠’을 통해 지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국가와 사회 재건의 소망을 심는 자리로 삼을 예정이다. 80명의 라크마 코랄 단원과 64명의 라크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 할 이번 연주회



LA 월트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열린 2022 라크마 여름 콘서트

는 튀르키예 출신 소프라노 부주 한치(Burcu Hanci), 튀르키예 출신 베이스 블락 빌지 리(Burak Bilgili), 테너 오위영, 그리고 메조 소프라노 줄리아 멧즐러(Julia Metzler)가 출연한다.

최승호 대표는 “대지진으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터키 주민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연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초대했다. 윤임상 음악감독은 “인종과 종교, 지역을 초월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다민족 음악인들과 이들이 후원자들이 2012년 결성한 비영리 음악단체 라크마는 다양한 공연을 선사해 왔으며, 매해 장학사업을 펼쳐왔다. 티켓 문의는 전화 (323)902-9561 또는 이메일 (lakmainfo@gmail.com)로 할 수 있다. 티켓은 20달러에서 100달러로 온라인(www.theLAKMA.org)에서 구입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 GMU, 한국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와 MOU 체결



GMU 총장 최규남 박사(좌)와 (사)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조현섭 교수(우) © 기독교일보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 총장 최규남 박사)가 지난 18일 한국 (사)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이하 청예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날 양 기관은 상호 인력 및 프로그램, 정보 및 자료를 공유하고 GMU 상담심리학 철

학박사(Ph.d in CP) 과정의 학점교류 및 자격증 취득, 또한 청예본이 제공하는 혜택을 공유하고 양 기관의 협력 사업추진을 약속했다.

청예본은 “중독 문제가 만연한 시대에, 전세계 선교사들을 중독전문가와 상담가로 만드는 비전을 가진 GMU와 업무 협약을 맺을 수 있어 매우 기쁘다. 우리나라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는 약물중독에 대한 예방과 중독자들에 대한 재활 문제를 전문적으로 준비하는 청예본의 활동에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규남 총장은 “다음세대를 망치고 있는 청소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청예본과 협력사업 및 공동연구를 진행할 것”이라며 “GMU의 상담심리학 철학박사(Ph.d in CP) 과정을 통해 청소년 중독예방 전문가 양성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김민선 기자

## 디카시인협회 | 금주의 시



### 시선

새벽에서 지금까지  
비바람 눈 모진 풍파  
지나온 너의 모습  
나의 시선 사로잡는구나  
거듭난 후 하얀 옷 입고  
험난한 인생길 다 마친 후  
좁은 문 들어서서 나의 모습  
주님의 시선은 어떠 하실까  
-글: 사진: 최순길-

## 버추어소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 후원금 굿네이버스 USA 에 전달

버추어소(Virtuosi, 대표 엄지영)가 지난 공연을 통해 모금된 1,800불을 21일(금) 굿네이버스(회장 이일하)에 전달했다. 버추어소는 지난 6월 4일 코스타 메사(Costa Mesa)에 위치한 아기로스센터포 워십 앤 퍼포밍 아트(Argyros Center for worship and Performing Arts)에서 공연을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모금된 후원금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 받지 못하는 아프리카 아동들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며, 후원금 모금을 위해 재능을 기부한 챔버 오케스트라 학생들에게는 오는 12월 연주회에서 굿네이버스를 통해 대통령자원봉사상을 수여될 예정이다.

버추어소 챔버 오케스트라는 학기 중 매주 토요일 4시에서 6시에 코스타 메사에 위치한 Mariners Christian School에서 연습을 하고 있으며, 협연 및 다양한 솔로연 경



버추어소 챔버 오케스트라가 연주 후원금 1,800불을 굿네이버스 USA에 전달했다.

험을 단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2023 가을 학기는 8월 19일에 시작한다. 김민선 기자  
오디션 문의: 562-213-3459, virtuosichamber@gmail.com  
굿네이버스 학생자원봉사 클럽 및 후원 문의 전화: 844-357-7797 (월-금, 오전 9시 ~ 오후 5시)  
담당자 Eunice Kil (eunice@goodneighbors.us)  
후원 문의: 818-335-9907

# 제2차 차세대목회자21인 초청 OC영적대각성새벽기도회

및 차세대목회자 세미나, 사모블레싱 나이트

## 제2차 차세대목회자21인초청 OC영적대각성 새벽기도회

- 일 시: 2023년 7월 31일 (월요일) ~ 8월 23일 (수요일) 오전 5시 30분
- 장 소: 갈보리선교교회 (담임 심상은 목사) 8700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심상은 목사  
갈보리선교교회 담임  
OC교회 회장

## 주제(대하 7:14) 복종의 세대여 다시 일어나라!

 이원석 목사 해밀턴교회 담임	 박성원 목사 호신사랑교회 담임	 이준영 목사 현대불가리아교회 담임	 왕상연 목사 라이프하우스앤베리교회 담임	 표희곤 목사 은혜성교회 담임	 박헌동 목사 보이스교회 담임
 손태진 목사 주성교회(CPI) 담임	 신용석 목사 로크스라이프교회 담임	 최국현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담임	 곽재밀 목사 남가주주공교회 담임	 김상현 목사 남가주주인교회 담임	 오승성 목사 하늘기쁨교회 담임
 윤희준 목사 복원교회 담임	 박광환 목사 카네이션교회 담임	 김근일 목사 다성기독교교회 담임	 박병수 목사 굿네이버스인본교회 담임	 조진석 목사 주의교회 담임	 차권희 목사 늘푸른교회 담임
 김상천 목사 내일몰트교회 담임	 김명영 목사 말씀대교회 담임	 김성식 목사 복성교회 담임			

## 3050 차세대 목회자 세미나

- 일 시: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오전 9시 - 오후 4시
- 장 소: 은혜한인교회 2층 친교실 (담임 한기홍 목사)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 참가대상: 3050목회자 및 부교역자 선착순 100명
- 문의: (714) 722-4805
- 대회장: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담임)
- 등록마감: 8월15일, 등록비 없음 (후원으로 대체됨)



## 2023 사모블레싱 나이트

- 30대에서 60대까지의 현역 사모님 200분 초청으로 마련되는 “축복과 위로, 회복과 도전의 시간”에 각교회 목회자와 부교역자의 사모님을 초청합니다. 눈물과 감동의 시간이 풍성한 식사와 푸짐한 선물을 함께 준비됩니다.
- 일 시: 2023년 9월 10일 주일 오후 5시
- 장 소: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 노창수 목사)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 주 관: OC기독교교회협의회, OC장로협의회
- 등록마감: 8월15일, 등록비 없음 (후원으로 대체됨)

공동주관: OC기독교교회협의회, OC목사회, OC여성목사회, OC장로협의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협찬: 미주복음방송, 크리스천헤럴드, CHTV, 세계어머니기도회, 기독교일보, 미주크리스천신문, 크리스천비전, [주간]사랑과사회 협력교회: 은혜한인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씨드교회, 갈보리선교교회, 미라클포인트교회

# “주님, 우리 믿고 의지합니다” 피아워십 찬양집회

간절하고 뜨거운 찬양으로 한국 CCM 계에서 주목 받고 있는 피아워십(FIA Worship)이 22일(토) 오후 7시 30분 나성영락교회에서 찬양집회를 이끌었다.

이번 미주 집회에 피아워십은 33명의 구성원들이 방문한 가운데 찬양집회에서 심어 곡을 부르며 뜨겁게 인도했다. 그리고 집회에 참석한 청중들에게 주를 향한 첫 마음을 회복하게 해 달라고, 다시금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 나아가게 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기도를 이끌었다. 이동선 전도사는 이날 피아워십이 생기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피아워십은 2019년 2월부터 시작했다. 어느날 장모님과 대화를 하는데, 찬양을 인터넷에 올리면 어땠냐고 물어오셨다. 어머니(장모님)가 오래 전에 교회를 떠나셨는데 인터넷에 올리면 집회 영상을 보시겠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어머니의 권유로 인터넷에 올리게 되었다. 마커스나 어노팅 등 잘하는 선배들이 많아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행동하는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찬양을 올렸고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라면서 “옛날에는 음악을 잘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지속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피아워십이 22일(토) 나성영락교회에서 찬양집회를 인도했다. ©기독일보

노력하고 있다. 지속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동하려고 안간힘을 쓰며 사역하고 있다”

그는 “우리 삶에 역경이 매번 찾아온다. 주 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듯이 어떤 풍파가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견딜 수 있다. 피아워십은 다음세대나 기성세대 모두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또 안 믿는 자들에게도 다가가려고 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다. 2019년 마음 가운

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활동을 해올 수 있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세상 일이 많아서 외면하는 모습은 있지 않나. 우리가 가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나성영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피아워십은 3년 전부터 목요 찬양집회를 시작해 현재는 매

주 목요일 인천 한국장로교회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유튜브 총 조회수가 5천6백만을 넘을 정도로 온라인을 통해 사역의 지경을 넓혀 가고 있으며, 유튜브 구독자수가 12만 명을 넘고, 조회수 100만을 넘는 곡들도 쉽게 볼 수 있을 만큼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피아워십은, 피아밴드, 피아워십 등 다양한 크리시찬 콘텐츠 제작 및 보급 등에도 앞장서고 있다.

피아워십의 피아는 FAITH IN ACTION을 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행동으로 실천하고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피아워십의 신앙 정신을 담고 있다. 피아워십은 35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더인 이동선 전도사는 분당우리교회(담임 이찬수 목사)에서 찬양 인도자로 섬기고 있기도 하다.

피아워십은 음악적 기교보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를 추구한다. 목요찬양집회에는 찬양과 말씀, 기도가 균형을 이루고, 참석자들의 연령대도 1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하다. 전 세대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찬송가부터 CCM까지 다양한 장르의 곡을 편곡해서 부른다. 토마스 멩 기자

## 효사랑 시니어대학 가을학기 개강 앞뒀



시니어대학

효사랑 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 시니어 대학 8월 8일(화)부터 가을학기를 시작한다.

강좌는 17주 동안 4개월간 매주 화, 목요일 주 2회 오전 9시-오후 2시까지 부에나팍의 선교회 강의실(7342 Orangethorpe Ave, #B-113, 115, 121)에서 진행된다.

가을학기의 수업은 성경 파노라마, 음악, 난타, 건강 체조와 힐링 댄스, 하모니카, 미술교실, 스마트폰, 영어교실, 합창연습 등이다. 특강으로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사진 교실에서 사진 촬영에 대한 강의로 사진 작가로의 데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효사랑 시니어 대학은 각 강좌를 통해

배운 재능을 통해 커뮤니티에 봉사하며 존경받는 어르신인 삶을 실천하면서 노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

특별히 학기 말에는 수강생에게 멕시코 엔세나다의 양로원과 여성 갠생원과 청소년 갠생원을 1박 2일 단기 선교로 선교하는 기회도 주어진다.

모집 인원은 화요일 선착순 20명, 목요일 선착순 20명으로 방역 수칙으로 등록 인원이 제한된다. 등록비는 주2회 기준으로 월 100달러이며 점심 식사가 제공된다. 현재 선착순 접수중에 있으며 전화로도 신청가능하며 직접 방문 접수는 7월 25일부터이다. 김민선 기자  
신청: (714) 670-8004, (562) 833-5520

## 교협과 함께하는 남가주 중보 기도팀 연합 기도대회



제 5차 남가주 중보 기도팀 연합 기도대회가 7월 24일 갈보리선교교회에서 열렸다.

제5차 남가주 중보기도팀 연합 기도회(운영위원장 강순영 목사)가 지난 7월 24일 갈보리선교교회 예배실에서 열렸다.

미국의 회복과 영적 각성을 위해 모여서 기도하는 연합 기도회는 이번 모임에서 오렌지카운티 교계와 함께했다. 특히 오렌지카운티 교계가 연합하여 진행하는 “21일 영적 대각성 기도회” 출정식으로 OC 교협, OC 목사회, OC 장로연합회와 OC 여성 목사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가 동참했다. 이날 기도회에 남가주 교협(회장 최영봉목사)의 회장 이하 임원들도 참석했다.

OC 교협 총무 추석근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에서 심상은 목사(OC 교협회장, 갈보리선교교회 담임목사)는 설교지금

이 부르짖을 때라고 설교했다. 이어서 중보 기도연합기도회 운영위원장인 강순영 목사가 기도가 필요한 미국의 현실과 비전 메시지를 전했다. 중보기도팀연합기도회 사무총장인 강태광 목사가 진행한 2부 기도회는 10개의 기도팀들이 미국을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했다.

한편, 8월에는 오렌지카운티 교협이 주최하는 21일 영적 대각성 기도회가 7월 31일부터 8월 23일 갈보리선교교회에서 진행되고, 8월 10일부터는 자마가 주최하는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은혜한인교회에서, 8월 한달간 새누리 침례교회에서는 매주일 오후 13:30에 중보기도 축제가 열린다. 김민선 기자

# 기독교 인문학의 지평을 넓히는 강태광 목사의 기독교 인문학 시리즈

기독교 인문학 시리즈 1



세계 명작 41편을 요약하고 정리!

기독교 인문학 시리즈 2



세계 명작 49편을 요약하고 정리!

기독교 인문학 시리즈 3



신약 성경 배경인 1세기 문화 정리!

출판 준비 중인 강태광 목사 책

기독교 인문학 시리즈 4

크리스천의 따뜻한 세상 읽기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기독교 인문학 시리즈 5

영미 문학의 최고봉 셰익스피어 작품 산책

기독교 인문학 시리즈 6

20 C 최고의 기독교 지성인 C. S. 루이스 삶과 작품 산책



후원문의 (323)578-7933 강태광 목사  
3123 W. 8th St. #206, Los Angeles, CA 90005

책 구입 문의 강태광 목사  
323 · 578 · 7933

# “탈북의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 공훈배우 출신 탈북자 주순영 선교사 간증집회

7월 21일 저녁 7시 30분 주순영 선교사 초청 찬양간증집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와 찬미”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영광교회 비전 센터에서 개최됐다. 주순영 선교사는 16살의 나이에 호위사령부 협주단 배우로 발탁되어 김일성 주석의 부인, 김정일의 생모 김정숙 역을 맡으며 1호 공훈배우로 활동했으나 북한이 경제 위기에 처했을 때 외국 투자자 유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탈북 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었다.

“저는 16살에 평양으로 올라왔다.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보니, 스타가 되는 것을 스스로 준비한다. 북한은 당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선택한다. 평양은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군복을 입고 평양에 들어가게 되자 얼마나 격양되었는가.”

호위청사 안으로 들어간 주 선교사는 김 정숙 역할 배우로 발탁되어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정치대학, 군사대학 등 5개 대학의 강사들로부터 정치·경제·교육·문화·군사·산업·예술 등 모든 분야의 김일성 앞에서 첫 공연을 했다. 이 공연을 본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숙 동무가 살아 돌아온 것 같다’는 칭찬을 받으며 공훈 배우로 행복을 누렸다.

하나님을 만난 후 주 선교사는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그때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김일성, 김정일이 하나

### 김일성, 김정일을 하나님으로 여겨 청춘과 심장을 바쳐 찬양

님인 줄 알고 청춘과 심장을 바쳐 그들을 찬양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이어서 김일성 사망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며, 김일성 신격화의 실상을 증언했다.

“온 나라 인민들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기다렸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텔레비전 앞에 앉힐까? 다른 때는 연분홍 저고리를 입고 나오던 앵커가 검은 저고리를 입고 나왔다. 앵커는, ‘잠시 중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심장의 거동을 멈췄습니다.’ 전국적으로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38명이 심장 마비로 죽었다.”

김일성 사후 북한에서는 경제 위기가 찾아왔고 대기근과 아사가 진행되었다.

“꽃제비가 된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았고 국경지대에 도달하니, 밤이면, 사람들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두만강을 건너간다. 그들의 사체가 강물에 떠내려와, 쌓여 있고 새들과 짐승들이 그것을 파먹는다. 강둑에서 자던 사람들이 매일 100명씩 죽어 나간다. 그러면 인원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전국에서 계속 국경지대쪽으로 와서, 인원이 계속 채워진다.”

그는 북한 땅을 뒤덮은 재난과 기근이 하나님의 사람의 3대 친족을 멸하고, 평양의 첫번째 교회 널다리 교회, 장대현 교회가 있던 자리에 교회를 부수고 김일성 동상을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북한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3대 친족을 멸했다. 하나님의 사람을 멸족시킨 북한은 저주의 땅으로 변하게 되었다. 철조망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떻게 그런 차이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평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린 장대현 교회가 있었고, 회개와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시대의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80년대까지 지탱될 수 있었다.”

주순영 선교사의 탈북은 뜻하지 않게 이뤄졌다. 경제 위기가 지속되자, 그는 외국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중국 연변에 파견됐다.

호텔 식당에서 투자자들을 만난 그는, 사람들의 요청에 노래를 부르자 사람들은 호응하며 팁을 주었다. 노래를 부른 댓가로 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왜 돈을 주는지 의아해서 묻자 “이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노력의 대가를 돈으로 줍니다.”라는 대답을 들었다. “이 돈을 장군님께 드리자”는 생각이 더욱 신이 나서 노래했다.

그 손님들 가운데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있었고, 그 분들로부터 주 선교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처음으로 듣게 된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김일성이 죽은 날이 7월 5일이다. 3일 동안 눕혀 놓았다. 하늘이 내신 분이기에 때문에 혹시 살아나지 않을까 해서 3일동안 기다렸다. 북조선에서는 김일성이 죽었을 때 하늘이 내신 분이 돌아가셔서 하늘이 저렇게 통곡한다고 해서 그 비를 통곡비라고 했다. 그때, 저에게 그 말 소리가 들려왔다. ‘그 비는 통곡비가 아니라 7-8월 장마비였다.’”

“그분들이 지붕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는 곳에 가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다. 노래로 돈을 번 것도 신기한데 10분의 1을 드리면 더 준다고 했다.”

첫날 공연에 2천 7백 위안을 팁으로 받고 다음날 아침 첫 십일조를 바치기 위해 아무 곳이나 지붕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는 곳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 “지붕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는 곳에 가 십일조를 드리세요 그러면 더 주십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나오자,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십일조를 바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데려다 주십시오.’라고 했다. ‘아버이



탈북자 주순영 선교사가 21일(금) 주님의영광교회에서 탈북의 길로 이끈 하나님을 간증했다. ©토마스 맹 기자

를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높았을까 젊었을까. 수령님을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수령님 보다 높았을까 젊었을까.’가 너무 궁금했다.”

하나님을 직접 찾아 뵙고 드리고 싶었던 주 선교사는 어디서 보고 계신지 궁금해 방을 빙 둘러 본 후, ‘처음 뵙겠습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 돈을 받으시고 어제 받은 것 보다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한 후 십일조를 드렸다.

그 다음날은 4천 8백 위안을 벌었고, ‘하나님께 조금 더 달라고 기도할 걸’이란 후회기도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진짜로 두 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조선 사람들은 자고 깨어나면 1백명 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1백 배, 만 배 주십시오.’

주 선교사에게 중국 시장의 풍족한 모습에도 충격을 받았다. 조선족 가이드의 ‘연변 땅에 십자가가 세워진 때부터 잘 살기 시작했습니다’라는 말에, ‘북조선 사람들이 연변에 드나들었는데 십자가를 세우면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이것을 빨리 당에 보고해야 겠다’고 생각했다.

세번째 날, 그가 호텔에 도착했을 때, 로비에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팁을 받아 총 3만 6천 위안을 벌었다. 그러나 다음날 북한으로 돌아갈 일정이기 때문에 십일조를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십일조를 바치라’는 음성이 계속 들렸다.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알지 못했던 주 선교사는 호텔 라디오에서 ‘십일조 방송’이 나오나 보더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음날 지원물자를 싣고 북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도저히 십자가를 지나치지 못

하고 마지막 십일조를 바쳤다. 세관에 검사를 모두 마치고 투자자들과 인사와 악수를 나누고 운전석에 앉아 문을 닫는 순간, 누군가 그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 “북조선에서 선생님이 도착하자마자 체포하자고 체포조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 선교사의 귀에 빨리 화장실에 가라는 소리가 들렸다. 화장실에 들어간 선교사는 성경책을 주신 선교사들이 가르쳐 대로 기도했다.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하라. 상황을 보고 하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저를 북조선 사람들이 체포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북조선으로 가면 안된다. 중국으로 돌아가라.”

그는 재빨리 택시에 몸을 싣고 연길로 향했다. 연길 시내에 도착했지만 갈 대가 없었다. 십자가가 있는 집에 들어섰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너무나 울컥했다. 맨 앞자리에 앉아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라고 기도하자,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켜주겠다.’는 음성을 들었다.

주 선교사는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욕의 고백처럼 저는 그때 광야에 던져졌다. 그때 부터의 삶은 말할 수 없었다. 십일조로 부풀렸던 돈가방의 돈으로 중국에서의 기간을 지켜주셨고, 그 돈이 중국에서 정착할 수 있는 정착금이었다. 중국에서 체포되고 북송되면서 죽어가는 북조선 사람들의 굶주림과 아픔을 그때부터 하나 하나 공부하고 체험하기 시작했다”며 첫째날 간증을 마무리했다. 주디 한 기자

##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 어부들

과 함께하는 시니어 찬양축제

## 2023, 7, 29(토) 4:00pm

###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 LA, CA 90019  
T: 213) 407-1600

*Seniors, praise God!*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어부들이 초청합니다!

**크렌셔장로교회**  
 CRENSHAW PRESBYTERIAN CHURCH  
 문의 한현중 목사 (213)407-1600



남가주 한인들을 위한 차세대 외래 진료 클리닉

희를  
굿다

드디어,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

# 조이스 리, M.D.

## 진료과목

### 만성 질환

→ 당뇨, 비만,  
관절염, 고혈압,  
골다공증

### 노인성 질환

→ 치매, 낙상,  
우울증, 요실금,  
수면장애, 보행  
장애, 영양실조

### 부인과 질환

→ 질염, 골반염,  
자궁경부염

### 예방 접종

왜 병원에서의 기다림을 당연하게 여기시나요?

오랜 대기시간만큼 만족스러운 진료를 받아오셨나요?

무성의 진료로 숨은 병을 발견하지 못해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사태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시니어 환자분들을 위해 최적의 진료 시스템을 도입한 센터메디컬클리닉을 경험해 보세요.

**하루 진료 환자 최대 7명, 인당 최대 1시간!  
한분 한분 정성을 다해 모십니다.**

\* 환자 등록 선착순 300명까지 / 진료 사전 예약 필수

- 세분화된 현대의학 단점 보완
- 질병 예방·건강한 삶 유지 초점

가정의학과 박사  
**조이스 리** 초대 주치의  
Joice Rhee, M.D.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평생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진료시간 : 월 - 금 8:30 am ~ 5:30 pm  
(714) 519-3024 \*예약과 자세한 사항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1995 W Malvern Ave, Unit A, Fullerton, CA 92833

\* 플러튼 골드짐 근처 T-Mobile과 Subway 사이에 위치

# “한국은 가난할 때부터 선교사 파송”

## 주안예교회 선교 세미나 선교 서적, 각 언어로 보급 시급



엄경섭 선교사

주안예교회(최혁 목사)가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21일(금)부터 29일(토)까지 한국 교계의 대표적인 선교사들을 강사로 선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22일 오전 엄경섭 선교사(동서선교연구개발원)가 세계 선교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청중에게 도전을 주었다. 엄경섭 선교사

는 “한국 교계에서 흔히 말하는 ‘세계 선교는 한국이 책임진다’는 구호가 있다. 사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 선교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다. 우리의 힘으로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간구의 기도이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복음 전하는 이 없이 들을 수 없다. 한국교회 DNA에 선교사 있다”

엄 선교사는 미전도 종족을 위해 물질로 또는 선교사로 헌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누군가는 그들에게 가야한다.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사람들을 찾고 있다. 선교적인 삶을 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건너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선교사가 나왔으면 좋겠다. 한 종족은 99%가 무슬림이다. 그곳에 선교사가 없다. 전세계에 그러한 종족들이 남아있다. 젊은이들을 길러서 선교사로 헌신시키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엄경섭 선교사는 동서선교연구개발원이 하고 있는 여러 사역들을 소개했다. 그는 “교회는 선교적이어야 한다. 아무리 어리고, 돈이 많거나 적거나, 교인이 적거나 많거나,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한국에 선교사들이 와서 30년이 되기 전에 3명의 선교사들을 중국 산동성으로 보냈다. 그때는 한국이 굉장히 가난해, 서양 사람들이 길거리에 대새가 나서 못 다닐 정도였지만, 그때에도 한국은 선교사를 해외로 보냈다. 한국교회 DNA 속에는 선교사가 있다”고 했다.

“기독교 관련 책들 각 언어로 보급해야”

엄 선교사는 “동서선교연구개발원은 크게 리서칭, 트레이닝, 케어, 네트워크, 디벨롭먼트를 토대로 여러 기관을 두고 사역하고 있다. 그중 아시아 선교에 도움이 되도록 끊임 없이 잡지나 책을 만드는 출판사역을 하고 있다. 선교 운동을 하려면 적어도 2가지 필요한데 첫째는 선교 지도자, 둘째는 그들이 읽을 책이다. 기독교 관련 책들을 각 나라 말로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교 역사, 교회 개척, 문화 습득 등을 시리즈로 보급하는 것

이다. 돈도 필요하지만, 이런 일에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적어 안타깝다. 교회에서도 선교지 교회 개척에만 치중해 출판사역 지원이 상대적으로 외면 받고 있다. 좋은 책들이 번역돼 민족교회에 보급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선교사 카운셀링센터가 있는데, 이 상담소에 많은 선교사들이 상담 요청을 하고 있다. 사이버 상담이 이뤄지고, 익명이 보장된다. 대면과, 카톡, 이메일로 상담이 이뤄진다. 선교사들이나 사모들,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상상할 수 없다. 부부간의 갈등, 조울증, 심지어 선교사 자녀들이 자살 직전에 연락이 오기도 한다. 상담사가 30명 정도 있는데, 정신과 전문의가 두 명 있고, 거의 대부분 상담학 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은 이들이 사역을 맡고 있다. 24시간 열려있고,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회복하고 있다”고 했다. 엄경섭 선교사는 아시아선교협의회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동서선교연구개발원 대표, 아신대학교(ATCS) 대학원 연구전담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토마스 멍 기자

## 뉴처치 창립 6주년 감사예배



뉴처치 6주년 예배

뉴처치(담임 최순환 목사) 7월 24일(월) 창립 6주년을 맞아 기념주일예배를 홀리데이 인 로스앤젤레스 게이트웨이 토크스에서 드렸다.

6주년 기념 예배에는 배준현 목사(대구 성명교회 담임), 김경석 목사(시드니 뉴워십 교회 담임), 조명재 목사(산호세 온누리 교회 담임)가 영상으로 축하했다. 그리고 방상용 목사(세리토스선교교회 담임)가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고, 뉴처치가 하나님의 비전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란다”라고 설교를 전했다.

최순환 목사는 “우리 교회는 믿지 않는 영혼이 교회에 첫 발을 들여 놓을 수 있게 진입 장벽을 허무는 사역에 집중한다”라고 사역의 방향을 밝혔다. 뉴처치는 팬더믹 이후 한인 유학생과 인턴청년들을 섬기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4월 유학생 50명을 선정하여 스타벅스 \$25 기프트 카드를 증정, 5월 인턴 청년 100명을 선정하여 북창동 순두부 \$20불 기프트 카드 증정, 6월 유학생 50명을 선정하여 It's Boba time \$20불 기프트 카드를 증정, 7월 유학생과 인턴 청년 50명을 선정하여 In-N-Out \$20불 기프트를 증정하는 운동을 펼쳤다.

특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년들을 우선 선별하는 조건을 갖고, 비신자 전도에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있다. 실제 선정된 대상들도 90%는 비신자이다. 선정자들은 예배에 참석하여 기프트 카드를 수령하기도 하며,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이메일로 수령하기도 한다.

웹사이트: www.newchurchdtdla.com

김민선 기자

## 예장 통합 이대위, 경계해야 할 이단 로고 공개



© 예장통합 이대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 이순장 목사, 이하 예장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백용훈 목사)는 8월 6일 총회 이단경계주일을 앞두고 전국노회에 ‘이단사이비 예방 리플렛’을 최근 배포했다. 또 전국노회 소속 교회들이 이단경계주일을 지키도록 지도를 당부했다.

예장통합 이대위가 제작한 ‘리플렛’에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안상홍증인회), 통일교(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안식교(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등이 실려 있다. 특히 각 이단 단체들이 자신들의 이단성을 위장하고자 만든 유관단체 이름과 로고도 공개했다.

노형구 기자

## [부고] 영생장로교회 김혜성 목사 별세



김혜성 목사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이자 아메리칸 신학대학·대학원 학장인 김혜성 목사가 지난 12일 소천했다.

장례예배는 28일(금) 오후 2시 30분 글렌데일 포레스트론의 처치 오브 더 리세셔널에서 김재연 목사가 집례한다. 이어서 당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하관예배가 진행된다.

장지: Forest Lawn Memorial Park, Glendale 1712 S. Glendale Ave, Glendale, CA 91205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sup>TH</sup>) • MYP(6<sup>TH</sup>~10<sup>TH</sup>) • DP(11<sup>TH</sup>~12<sup>TH</sup>)

“아! 이래서~ 믿을 수 있구나!”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 커뮤니케이션 툴로 간편하게 정보 이용
-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 성경필사

## 장학생 모 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3:16~17)

귀한 시간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필사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기도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 성경 필사 본문 (한글, 영문 선택 가능)

마태복음 · 마가복음 · 누가복음 · 요한복음 · 사도행전 · 로마서

- 장 학 금 : 1인당 \$1,000 (선정인원 50명)
- 응모대상 : 현재 재학중인 고등학생, 대학생 (성경필사 노트 제공)
- 접수방법 : QR코드 참고
- 접수기간 : 2023년 8월 20일(일)까지
- 문의번호 : 기독일보 (213)739-0403, (213)434-1170
- 결과발표 : 2023년 8월 25일(금) 기독일보 신문지면에 선정 된 성경 필사 자격을 갖는 50명의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필사자격을 받은 50명의 학생들은 필사노트를 받은 후 필사를 시작해서 마친 후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독일보 사무실로 필사노트와 소감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장학금 전달식은 2024년 1월에 할 예정이며 날짜와 장소는 추후에 공지합니다.



SCAN ME!

### 성경 필사 후 소감문 작성자 중 선별하여 특별 상품 수여

1등	2등	3등
노트북	아이패드	에어팟

\* 상품은 광고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성경필사 후원/자/모/집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세상 미디어에 너무도 많은 시간을 쓰고 눈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성경말씀을 읽고 필사하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동안 성경 필사를 하게 될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후원자분들을 찾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힘을 내어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도록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후원방법 :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기부금은 세금공제 서류 발급 가능)  
CHASE BANK Account #: 611921385 Routing #: 322271627 Zelle: chdailyreporter@gmail.com

## 기독일보







# 이란, 여성 복장 단속하는 '지도 순찰대' 활동 재개



이란 22세 여성 마흐사 아미니의 의문사에 항의하는 시위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됐다. ©UN

## 반정부 시위 소강 상태 보이자 단속 강화

이란이 이슬람 율법에 따라 여성의 복장을 단속하는 '지도 순찰대' 활동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도 순찰대는 강경파 마무드 아바디 네자드 대통령 당시 만들어졌으며, 2006년부터 히잡 착용 검사 등 풍속 단속을 시작했다.

이른바 '종교 경찰'로도 불리는 이들은 지난해 광범위한 반정부 시위를 촉발한 마흐사 아미니(22)의 의문사 사건과 연관돼 있다.

지난 16일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의하면, 사이드 문타제르 알메히디 경찰청 대변인은 이날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을 단속하고, 지도에 불응하는 사람을 체포하는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복 경찰이 도시의 주요 거리에서 복장을 단속하고,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찍은 사진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아미니는 지난해 9월 13일 테헤란 도심에서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찰대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일 뒤 숨졌다. 이 사건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는 9개월 넘게 지속됐다.

이란 인권운동가통신(HRANA) 등 인권단체들은 "반정부 시위로 최소 500명이 숨지고 2만여 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란 정부는 지난해 12월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자 지도 순찰대 폐지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으나 실제로 없애지는 않았고, 히잡 관련 단속을 예전만큼 엄격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다 시위가 소강 상태를 보이자 단속을 다시 강화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 4월 '스마트 감시 카메라'를 동원한 단속을 시행했다. 히잡을 쓰지 않은 손님을 받은 식당 등 수백 곳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강혜진 기자

# “나이지리아 종교 자유 침해, 국제사회 무관심” 경고

## 아나그베 주교, 美 하원 외교위 청문회서 제기

최근 미국 의회 소위원회에 제출된 증언에서 나이지리아의 한 가톨릭 주교가 기독교 공동체를 겨냥한 대량 학살에 대해 나이지리아 정부와 국제 사회가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18일 워싱턴 DC에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세계 보건, 세계 인권 및 국제기구 소위원회가 “세계적 종교 자유의 끔찍한 상태”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나이지리아 베누에주 마쿠르디 로마 가톨릭 교구의 윈프레드 아나그베(Winfred Anagbe) 주교는 그의 교구에서 발생한 대량 학살에 대해 서면으로 증언했다.

아나그베 주교는 “오랜 시간 동안 이슬람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수천 명이 사망했고, 현재 수백만 명의 난민이 주 전역에 흩어져서 수용소로 피신했다”고 전했다.

그는 “일부 지역에서 학교, 진료소, 교회, 시장 등이 모두 파괴되었다”며 “2014년, 본인이 주교가 된 후, 목동으로 가장한 이슬람 무장단체에게 영토를 빼앗겼고, 위협 때문에 14개의 교구를 폐쇄해야 했다”고 했다.

아나그베는 2009년 이후 ‘이주 및 토지 점령’으로 인해 베누에주가 대량 학살을 겪었다며, 2014년 이후 “거의 매일 교구 주민들을 잃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무장 세력이 “사람들, 심지어 임산부와 어린이들까지 살해했다”며 “땅을 점령하여 모든 경제 활동을 중단시킨 것은 나이지리아 다른 지역의 보고 하람과 같은 지하다 요소들의 행위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주교는 일련의 사건들이 “계획적인 대량 학살”이며, 유엔 집단학살 방지 사무소 및 보호 책임(UNOGRPR)이 선언한 대량 학살의 정의인 “국가, 민족, 인종 또는 종교 집단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할



USCIRF 위원장 아브라함 쿠퍼가 2023년 7월 18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하원 외교위원회 주최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Nicole Alcindor/ Christianpost

의도로 저지른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잔학 행위가 시작된 이후 가해자들에게 심각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통탄스럽다”며 “(나이지리아) 정부가 학살 종식을 위한 명백한 조치나 진정 노력의 보여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주교는 베누에 주에서 97%를 차지하는 기독교인을 향한 폭력이 “지하드의 종교적 동기에 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1989년 나이지리아의 무슬림 모임이 채택한 ‘아부자 이슬람 선언’(Abuja Islamic Declaration)이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과 이란 혁명의 사상에 강한 영향을 받았고, 이 선언은 이슬람이 정치, 경제, 문화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측면을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나이지리아를 “종교적 편견으로 퇴행시킨 요인”으로 지목했다.

아나그베는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노골적인 살해와 이주는, 근본주의 이슬람 단체들의 오랜 약속인 ‘대서양에 코란을 담그기’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나이지리아 중·남부 지역의 기독교 주를 정복하기 위한 완곡한 표현”이라고 했다.

아나그베 주교는 발언을 마치면서, 미국 국무부의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 목록에 다시 나이지리아를 지정하고,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에 종교자유 특사를 임명하도록 촉구했다.

김유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E모예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모예 (2부)오전 11:00  
금요성경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벨리베를 OC제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회 저녁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193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1, (818)303-8887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플러시(Calling), 고치교(Healing), 기르메(Maturing), 맞선대(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hyun.org

### 사우스베이, 오렌지카운티 지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Redeering Grace(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영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이항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회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김정훈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파송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KMC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 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P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국학교(토요일) 오전 9:0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벰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기든구국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정애민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부 오전 9:30, 11:30  
한어(한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토)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62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EM) 주일 11: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서서 오전 9:30(금)  
청년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혁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령영아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몰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C대청년부 오후 2:3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일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등한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소망받는교회! 세계선교를 이루려가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오후 1:00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dla.com

강석진 목사의 북한교회사 이야기

평양 장대현 장로교회와 쌍벽을 이루었던 남산현 감리교회의 역사

평양 도성에는 미 북장로교에서 파송 받은 사무엘 마펏이 1894년 1월 7일에 대동문 안의 널다리골에 교회를 개척하였다. 그 후 1901년에는 교회가 크게 부흥되어 평양의 중앙인 장대재로 이전하여 7자 형의 큰 교회당을 건축하였고 부흥을 거듭하여 2천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다. 그 후에도 계속 부흥되자 교회를 분립 개척하여 서문밖교회와 산정현교회, 창광교회 등으로 성밖까지 부흥 개척되었다.

평양의 교회 개척은 두 개의 개신교가 주류를 이루었다. 미 북장로교와 함께 거의 같은 시기에 미 감리교로부터 파송된 윌리엄 제임스 홀은 1893년 3월에 평양과 한성을 오가면서 김창식과 함께 의료선교와 교회 개척을 통해 본격화 하였다. 이때에 평양 감사는 외국인 집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거주를 허락하지 않았기에 마펏이나 홀 선교사는 왕래하면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 사무엘 마펏에게는 한석진이라는 조사가 있었기에 그를 대신하여 평양 교회 개척이 큰 힘이 되어 주었고, 홀 선교사에게는 김창식이 있어 선교사가 부재시에는 빈 공백을 헌신적으로 감당해 주었다.

평양의 최초의 감리교회는 1893년 3월에 집 두 채를 구입하여 하나는 교회와 진료소로 또 하나는 거처로 사용하였다. 그해 4월부터는 서문동의 '초당집'에서 정기 예배를 드렸고 그 곳 이후에는 '남산현교회'로 성장하였다. 1896년에는 학습교인이 30명, 세례 입교인이 21명으로 증가되었다. 이어서 교인들이 헌금을 하여 '남산재'라는 평양의 언덕에 1백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와집 예배당을 헌당하였다. 이 부지에 별도로 학교 건물을 다시 세워서 광성 소학교와 광성 고등학교로 발전시켰다.

1894년 11월에 홀 선교사가 순직한 후 미 감리교 선교회(연회)에서는 1896년 8월에 노블(A. Noble) 부부 선교사와 의료 선교사인 폴웰(E.D. Follwell) 부부 선교사를 파송했고 김창식을 그 교회의 전도사로 임명했다. 그 후 교인이 폭증하여 1899년에는 학습교인 703명, 세례 입



강석진 목사 '북한교회사' 저자

교인이 77명으로 늘었다. 그러자 많은 교인들을 수용하기 위해 1903년에는 다시 벽돌로 된 예배당을 건축하여 1천2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예배당이 세워졌다. 그 이후에도 부흥이 계속되어 '봉룡동교회'와 '칠산교회'와 '이문리교회'가 분립 개척되었다.

이로서 평양에는 사무엘 마펏이 개척한 '장대현교회'와 감리교에서 개척한 '남산현교회'가 평양에 쌍벽을 이루었으며 많은 지교회들이 계속하여 개척되었고 부흥되었다.

1907년 1월에 '평양대부흥운동'에 장대현장로교회와 남산현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크게 하였으며 그로인해 남산현교회는 교인이 3천 명이 넘었다. 실로 대단한 부흥의 결실이었다. 남산현교회는 단지 신앙적인 공동체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1919년에 3.1운동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당시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인 신홍식은 독립선언서에서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고 후에 큰 옥고를 치루기도 하였다. 또한 부목사였던 박석훈은 3월 1일 교인들과 함께 교회에서 고종황제 봉도식과 독립선언식을 갖고 만세시위를 지휘하다가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고 11월 15일 옥중에서 사망하였다.

또한 장로교 여신도들과 함께 1919년 11월 대한 애국부인회를 조직하여 상해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을 도왔다.

1945년 8월 15일 일제 강징에서 해방되자 교회 재건이 되었지만, 바로 소련에 의한 공산정권이 교회를 압살하려 하여 평양의 여러 교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남으로 남하하여 이남 곳곳에 교회를 재건하였다.

교회사에 등장하는 인문학자(1) 암브로시우스 2 나봇 이야기

암브로시우스는 감독이 되면서 전 재산을 팔아 나눔을 실천한 후 영적 개혁과 빈민 구제에 힘썼습니다. 그는 성경공부와 책 읽기에 힘쓰는 한편 구제적 삶으로 섬김과 나눔에 헌신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변방 고트족(Goth) 침입으로 수많은 난민이 밀라노로 몰려들자, 교회의 재정으로 난민 구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그러한 자선 행동에 성직자 그룹이 반발하자, 목회자의 참다운 사명이 사랑의 나눔임을 설교했습니다.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했던 암브로시우스는 교회사에 길이 남는 중요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암브로시우스가 남긴 많은 자료는 나눔의 축복을 혹은 나눔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는 특히 부자들의 부도덕성을 지적하며 부자들의 탐욕이 하나님 심판의 대상임을 강조합니다. 그의 가르침에 의하면 나눔이 경건입니다. 나눔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암브로시우스의 삶을 후세에 전한 그의 비서 파울리누스는 "암브로시우스의 생애"라는 그의 책에서 암브로시우스가 끊임없이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증언합니다. 금식과 기도로 수도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암브로시우스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특별한 애정을 가졌다고 전합니다. 그의 삶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단출했다고 합니다.

철저한 헌신으로 분주한 삶을 살던 암브로시우스는 초인적인 집중력으로 저자 활동에도 힘썼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교훈을 전할 때 자주 성경 인물에서 그 주제를 끌어내곤 했습니다. 예컨대 야곱에게서는 <야곱과 행복한 삶>을 통해서 행복을, 엘리야에게서는 <엘리야와 금식>을 통해 금식을, 토비아에게서는 <토비아 이야기>에서 고리대금업과 돈놀이를 주제로 발전시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얼마전 분도출판사에서 발행한 <나봇 이야기>를 주문해서 읽었습니다. 난해하지만 귀한 메시지를 품은 책입니다. 목적인 메시지를 담은 설교입니다. <나봇 이야기>는 헬라 교부들 설교에서 깨달음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대 바실리우스가 부자들의 탐욕과 불의를 비판하는 두 개의 설교 영감이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를 듣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나봇 이야기>는 탐욕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한 부자와 권력자들의 심판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밀라노를 비롯한 로마 많은 지역에서는 부한 자들이 권력자들과 결탁하여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악이 횡행했습니다. 법적으로 합리화된 폭압과 착취는 부유한 자들은 더욱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당시 부자들의 탐욕과 악행을 낱알이 드러내어 고발합니다. 발전과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가난한 자들을 쫓아내고 희생시키는 사회적 부조리를 폭로합니다. <나봇 이야기>는 아합과 이세벨이 나라의 목적 혹은 궁궐의 건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약하고 가난한 나봇을 약탈하는 무서운 죄를 준엄하게 꾸짖으면서 당대 부자들의 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봇 이야기는 총 1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장의 주제를 요약하거나 일관성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원오 박사가 번역하고 주석을 달아 놓은 한글판 나봇 이야기는 1장부터 17장까지 각각에 제목을 달아 놓았습니다. 17장의 모든 내용이 부자들의 악을 열거하며, 악의 기원을 밝히려 합니다.

나봇 이야기를 시작하는 문장은 이후의 모든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나봇 이야기는 옛날 일이지만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는 부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재물이 가난한 사람을 그 작은 밭에서 내쫓지 않으며, 궁핍한 자를 조상의 땅 끝자락에서 몰아내지 않습니까? 그 누가 자신이 지닌 것만으로 만족합니까?"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부자들이 나봇을 대하는 태도는 같다고 고발합니다. 부자의 마음은 수천년이 흘렀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나봇 시대, 암브로시우스 시대나 21세기나 탐욕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탐욕을 아파하며 "탐욕이 죄악이다!"라고 부르짖었던 암브로시우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023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탈보트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세계 최고의 교수진,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실용적인 사역 대비,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 (I-20) 발급.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BHE 정회원, ATS 승인, 기독교대학(원) 목회학석사(M.Div.) 성당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716261227-3454.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국기독교대학원 한국부. 성경지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ATS, ABHE 정회원, 온캠퍼스 수업, CANVAS 기반 온라인 수업, 실시간 화상수업, 온오프라인 통합 블렌디드 수업,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학자금 지원 (Col & Pell Grants).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 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가는 Re-Vital Online Program.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Tel: 1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ia.edu

#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 We Bridge 교회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 오전 5:30

“모든 예에서 일본어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주일예배 오후 12:50  
교회학교 & 유스예배 주일 오후 12:50  
수요나눔 교역자 오전 9:30  
수요종보기도 오후 8:30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이미애**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 오전 5:30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한주봉**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화요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전 10:00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이현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00  
교육부예배 오후 12: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30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송재봉**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종보기도회 저녁 8:00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박지상**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JOE HONG**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

**ISAIAH LEE**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장경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069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

**제임스킴**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남상권**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목,금), 6:30(토)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김상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In Christ Christian Church**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안상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오상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EM/교육부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금요성구담구 오후 7:30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김창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남가주은혜선교회**

300 Vallejo Dr. Glendale, CA 91206  
T. (818)713-3006

**차권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침례회 저녁 7: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놀익장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 (213)598-6878

**강은덕**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전 9:30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jrrkd@hanmail.net

**김영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30  
어르신예배 오전 3: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더섬기는교회**

4100 W Commonwealth Ave #102, Fullerton, CA 92833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정용암** 담임목사

주일예배 낮 12:00  
수요TEE성경공부 오전 10:00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신용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어린이주일학교 오전 2:30  
화요일성경침례회 오후 7:30  
토요일침례기도회 오전 7:30

**로고스라이프교회**

4872 Bishop St. Cypress, CA 90630  
T. (714)673-2141

**정달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김명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이침기도회 오전 6:30(화-토)  
송보기도회 오전 10:00(주일)  
스그룹 성경공부 오전 10:00-12:00(수)

**말씀위의교회**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 92506  
T. (909)247-7355

**서민수**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목,금), 오전 6:00(토)  
리크레네타 주일예배 3부 오후 2:30  
(2801 Montrose Ave, La Crescenta, CA 91214)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장현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일침례기도회 오전 8:00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 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지동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윤혁**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EM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신현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곽태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장동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6:00(토요일)

**선민교회**

3388 W. 8th St. #204, Los Angeles, CA 90005  
T. (213)700-5638

**임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성경공부 평일 저녁 6:30

**섬김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 8129

**이석기**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김요한** 담임목사

주일예배 수요일새벽기도회 오후 8:00  
금요일새벽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30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정찬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30  
이침기도회(온라인) 오전 7:00(화-토)  
기도모임 오전 11:00(화)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김지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시 [세대가 함께 하는]  
주일학교 & Youth 오후 7:30  
금요성경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  
청년부 주일예배 저녁 8시  
수요(온라인)새벽기도 주일예배 새벽 5시 30분

**원웨이침례교회**

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최주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8: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표희곤** 담임목사

주일예배 어린이 & Youth 오전 11:45  
오전 11:45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류연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김성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30 /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주백성교회**

3400 W. 6th St. Suite 202, Los Angeles, CA 90020  
T. (818)633-1241

**양수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오전 10:30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권혁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나눔 코이 모임 오후 6:00(월)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조인**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pc.com

**류광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youth모임 오후 7:00  
목요종보기도회 오전 10:00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김용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및 성경공부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정하이**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크로스교회**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오홍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오정시)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주일예배 3부 저녁 인제문(오정시)  
주중예배 목요일 오후 5:00(영어) / 금요일 오후 8:00 (영어)  
파워워십 2번주 금요일 오후 8:00(영어) / 4번주 목요일 오후 8:00(영어)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양국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dsgsc@gmail.com

**김요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Global United Church**

3333 Wilshire Blvd #325, LA, CA 90010  
T. (213)221-9147 yohan72@gmail.com

**양홍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기도회(주일) 오후 3:00

**굿프렌즈교회**

5721 Lincoln Ave #K, Cypress, CA 90630  
T. (714)852-8485

강준민 칼럼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지만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은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없었던 것을 소유한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소유한 것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소유한 것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소중한 것의 가치를 자각할 때는 소중한 것을 상실할 때입니다. 사람은 소유한 것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그 소유한 것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이것이 인생의 신비입니다. 인생의 역설입니다.

돈을 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도 힘들지만 번 돈을 지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돈을 지키는 것과 함께 어려운 것은 돈을 잘 쓰는 것입니다. 돈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중립입니다. 돈은 악한데 쓰면 악한 것이 됩니다.

반면에 선한 일에 쓰면 놀라운 가치를 발휘합니다.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을 키우는 데 쓴다면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과 선교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쓴다면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는 중에 성경에서 강조해서 지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숙고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 지켰던 것은 믿음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딤후 4:7).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계 14:12).

신념과 참된 믿음은 다릅니다. 신념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 낸 믿음입니다. 확신입니다. 반면에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원천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해 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환경을 무시할 수 없지만 환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17하).

성경은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3). 하나 됨은 연합입니다. 연결입니다. 화목입니다. 화평입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단절의 영입니다. 받은 복을 유지하고 키우고 누리고 나누기 위해서는 연합해야 합니다. 연합이 깨어질 때 받은 복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연합하게 만드시는 영이십니다. 십자가는 연합하는 곳입니다. 분열의 벽을 무너뜨리고 다리를 놓아 하나 되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말씀”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눅 11:28).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계 1:3). 말씀을 지키는다는 뜻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말씀을 마음의 그릇이 보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인생 여정에서 돈, 명예, 인기, 권세, 미모, 그리고 건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 여정에서 한때 소중한 여겼던 것들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는 우리 곁을 떠납니다. 모두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그 수명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

니다(벧전 1:23). 말씀 속에는 지혜의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가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우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길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고, 즐거워하는 것만 우리 곁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시 1:2). 소중한 것을 지키는 지혜는 소중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머물고 사랑하는 것만 우리에게 남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닦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의해 그 색깔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마음도 지키고, 믿음도 지키고, 하나 됨도 지킬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뇌와 마음에 새기십시오.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그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사 19:10).

김한요 칼럼

미션 임파서블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아내가 너무도 좋아하는 남자 배우,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 7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아직은 보지 못했지만, 톰 크루즈가 직접 영화를 찍는 트레일러가 나왔는데, 톰 크루즈는 위험한 액션을 스텐트맨을 쓰지 않고 직접 찍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영화 속에 나타나는 스릴과 긴장감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선 직접 위

험을 무릅쓰고 찍어야 한다는 그의 소신 때문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장면이었는데, 한 장면을 찍기 위해 하루에도 7번 이상 뛰어내리면서 최상의 장면을 찍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독과 촬영에 동원되는 모든 사람조차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들 조심하라고 하는데, 그때 톰 크루즈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Don't be careful. Be confident!(조심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라!)” 이 말을 하고 씩~ 웃으며 다시 오토바이 타고 절벽 아래로 나는 모습은 저로 하여금 영화를 더 보고 싶게 합니다. 위험한 일을 할 때는 조심스러워하면 할수록 더 긴장되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할 때 잘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직업 중 가장 위험한 직업은 무엇일까요? 인명 피해가 많은 순으로 벌목공이

나 원양어선 어부 순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기사는 한국 대통령만큼 위험한 직업은 없다고 보고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암살당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감옥 가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한 후 감옥에 가는 것을 보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도 못지않게 위험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요즘 5년을 꾸준히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역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후배 목회자 중에 목회의 현장에서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팔방미인을 원하는 교회의 요구에 턱 없이 부족한 인간 목회자는 마치 목회가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다는 고백을 합니다. 단순히 요즘 목회자는 맷집이 약해서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이 목회의 현실에 있습니다. 만능 설교가에 만능 행정이, 따

뜻한 마음에 강직한 추진력, 밤잠 안 자고 뛰어도 강철같은 건강, 인재를 적재적소에 쓸 줄 아는 최고 관리인, 또한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한 스캔들-프리 자기관리, 목사 부인은 하해와 같은 사랑의 화신이어야 하고, 자녀들은 모든 면에 뛰어난 흠 없는 자녀이어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가 잘못되면 지뢰를 밟는 것이 목회라고 합니다. 요즘 미국이나 한국이나, 신학교마다 지원 학생 미달입니다. 굳이 그 위험한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신학교에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후배들에게 조심스럽게 목회하라는 말보다, 자신 있게 목회하라는 말을 자주 하고 싶습니다. 지뢰밭 무서워하지 말고, 복음의 폭탄을 던지며,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목회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는 목회자들과 함께 미션 임파서블 7 영화를 보러 가야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조선일보 가판대에서 기독교일보 신문 보실 수 있습니다.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기독교샵 www.Kidokshop.com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교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워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o COLLISION CENTER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아의 정성이 가득... 미리 주문해 주세요!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진유철 칼럼

영적전투의 가장 중요한 장소, 생각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영국에서 '유다의 얼굴'이라는 연극이 상연된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누가 가롯 유다의 배역을 맡을 것인가? 돌아다니며 가롯 유다 배역을 찾은 얘기인데, 이 극의 마지막이 인상 깊다고 합니다. 막이 내려지기 전 등장했던 모든 인물들이 나와서 관객들을 향해 한 목소리로 크게 외칩니다. '당신도 가롯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가롯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관객들은 당황하고 큰 충격을 받지만 깊은 의미와 감동을 남긴다

고 합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철야 기도하고 뽑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 슈퍼 컴퓨터로 뽑을 때는 가장 자질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최악의 제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생각을 분별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요13:2) 그 후에도 예수님은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인 유다는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끌려가고 난 뒤에는 배신의 대가로 받았던 은 30냥을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을 매고 자살하고 맙니다.(마27:2-4) 오늘의 우리도 속으로 하는 생각이니까 누가 알겠는가 하면서 아무 생각이나 받아들이다가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아직 부끄러운 일을 한 것

도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내 육체를 성전삼아 거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엄청난 영적 죄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침체가 오거나 짜증이 나고 무기력해진다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생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 모든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늘 지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집 문단속을 하고, 물건이 가득한 가게나 창고의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지갑, 건강, 귀중품 등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생각인데,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마귀는 언제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말 1마디

에도 무너질 수 있기에 더욱 잘 지켜야 합니다. 나쁜 말, 험담, 뒤 담화는 마음과 생각의 "독극물"과 같아서, 아무 거나 듣고 아무나 대화하고 아무 거나 보고 아무 생각이 나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롬8:6-7)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채워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입력되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생각하게 되고, 결국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시1:1-2) 이번 성경암송대회가 우리와 다음세대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일임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성철 법률 칼럼

교회 세금 공제와 기록



주 성 철 목사  
태평양 법률협회  
한국어부

오늘은 좀 듣기 거부한 이야기부터 시작 하는데, 그것은 교회의 세금 문제이다. 많은 사람이 좀 의아해 할것은 "교회가 연방정부로부터 세금을 공제받았는데, 또 무슨 세금이나?" 라 질문할지 모르지만 교회가 501(c)(3)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나 비영리 단체에서 세금공제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세금공제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 짧은 지면을 통해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것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알기 원하시면, rju@pji.org로 연락하시고, 캘리포니아 주 Board of Equalization부에서 발행한 "Sales and Use Taxes for nonprofit and exempt organization"를 참고하기 바란다. 물론 각 교회의 CPA에게 문의하면, 좀더 구체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주가 관할하고 있는 이 부서에서는 적어도 25개의 세금

과 납세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08년을 예로 들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52 billion dollar의 수입을 얻고 있고, 교육, 보건, 공공 안전, 차량, 그리고 복지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그럼 먼저 비영리 단체나 종교 단체, 즉 교회나 기타 종교 회당에게 연방정부 세금 공제 혜택을 주었다는 것은 교회나 비영리 단체에게 총체적으로 모든 거래에 대한 세금까지 공제했다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참고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캘리포니아를 제외하고 기타 다른 주에서는 교회나 비영리 단체가 물품을 구입할 때 세금 공제해 준다. 유독 캘리포니아 주에는 교회에서 사는 모든 물품에 세금 공제가 안 된다. 같은 Costco라도 콜로라도 주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과 캘리포니아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다르다.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교회나 비영리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음식판매, 경매 또는 공매, 무음 경매 즉 테이블 위에 물건을 설치해 놓고 싸인 업 페이퍼를 놓아 경매하는 것은 Silent Auction, 즉 무음 경매라고 한다. 그리고 가라지 세일과 바자, 카니발 행사 노점 판매 등등 모두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심지어는 교회 전문 찬양팀이나 목사님 설교 CD를 판매했을 때 이것도 역시 세금대상이 된다. 하지

만, 이 물품이 타주로 판매가 되었을 때에는 세금공제가 된다. 참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에서나 비영리단체에서 음식을 팔 때 찬 음식, 즉 샌드위치와 탄산음료와 주류를 제외하고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따뜻한 음식을 그 장소에서 섭취하게되면 세금을 내야 하고, 뭐든지 to-go 음식을 가져간다면 세금공제가 된다. 그리고 더운 음식, 즉 햄버거와 탄산음료 콤비로 판매했을 때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이와 달리 제과부류나 커피, 코코아와 같은 따뜻한 음료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교회나 비영리 단체가 501(c)(3) 연방정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판매가 다 같이 총괄적으로 세금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인 이민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먼저 점심 친교에 1불이든 2불이든 선교금 형식으로 돈을 받는 데, 이렇게 하면 두 가지 면에서 피할 수 없는 정부 압력이 들어온다. 먼저는 음식이 따뜻한 음식이고, 두 번째로는 그 음식을 친교실에서 섭취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에서는 음식 판매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각 주마다 비영리단체나 교회에게 요구하는 세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 주에 Board of Equalization에 의뢰하기 바란다.

캘리포니아에 소재해 있는 어느 대형 교회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음식을 선교기금 목적으로 판매를 해 오고 있고, 요즘을 더 발전해서 떡이나 기타 다른 음식들까지 판매를 하고 있다. 특히 김치 판매를 대대적으로 하는 교회도 많이 있다. 이것은 다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리고 Sales and Use Taxes for Nonprofit Organization 소책자에는 교회나 비영리 단체에서 어느 사역의 목적으로 바자회나 물품 판매를 했을 경우 세금보고 양식이 준비되어 있다. 한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비영리단체나 교회에서 이런 물품을 팔 때 주 정부에서 허락하는 Sales Licence는 얻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교회의 일과 다르지만, 여러분 혹시 장례식이나 결혼식에서 축하객이나 조객으로 부터 조의금을 받을 때가 있다. 미국 정부에서 그동안 여기에 대하여는 전혀 정보가 없어서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 이제 IRS에서 이 내용을 알기 시작했다. 요점은 장례식이나 결혼식에서 얻은 모든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 보고할 때 꼭 보고해야 한다. 특히 목회자들이 타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고 사례를 받았을 때 어느 금액 이상을 받으면 이것도 세금에 보고해야 한다. 단 목회자 가운데 정교 분리법에 세금을 안 내겠다고 한 사람을 제외하고 세금에 대한 의무가 있다.

매린랜드 빌립보교회 부목사님(Full time) 청빙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어"라는 사명으로 1993년 창립되어서 30주년을 맞이하는 빌립보교회(초교파)에서 박동훈 담임목사님과 함께 예배와 찬양사역을 섬겨주실 부 교역자님을 청빙합니다.

1. 지원자격

- 1) 그리스도 복음 중심의 목회 소명과 비전이 분명하신 분
- 2) 한국 또는 미국에서 정규신학대 학위(M.Div.) 를 받으신 분으로 Full time 부목사 경험이 있으신 분
- 3)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역하실수 있으신 분

2. 주 사역

예배 및 찬양사역, 목양 지원

3. 제출서류

- 1) 이력서(가족사진 첨부) 1부
- 2) 자기소개 및 신앙간증문(소명, 목회비전, 사역경력, 가족소개 등)
- 3) 목사안수 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 4) 최근 설교 및 찬양 인도 영상(파일 또는 링크)
- 5) 추천서 2부(각 추천인 연락처 기재)

4.접수 및 방법

- 1) 서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2) 문의 및 서류제출 (obdnc3@gmail.com) Paul Yi(이상택 장로 443-286-2987)
- 3) 서류마감 (2023년 7월 29일)

5. 참조

빌립보교회 홈페이지(http://www.churchofphilippi.org)

매린랜드 빌립보교회

부목사 청빙

캘리포니아 LA 동부 Chino Hills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함께 동역하실 Full-time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www.sunhanchurch.com

1. 지원 자격

- 1) ECO (복음언약장로교 A Covenant Order of Evangelical Presbyterians, www.eco-pres.org) 교단에 속해 있거나 교단 가입이 가능하신 분
- 2) 정규 신학대학원(M.Div) 졸업자
- 3) 현 거주지가 미국이고, 미국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필요시 종교비자 지원 가능)
- 4) 장년부 사역 유경험자

2. 모집분야

- 1) 풀타임 부목사 (1명)

3. 제출서류

- 1) 이력서 1부 (사진 첨부) - 미국에서의 자신의 법적 신분 명시(예:영주권자)
- 2) 자기소개서 1부 (신앙고백 및 간증문, 사역 및 일반 경력, 은사, 가족소개 및 사진)
- 3) 최근 1년 이내 설교 영상(2편): 유튜브 링크
- 4) 추천인 2명 이름과 연락처 (추천인 1명은 현(최근) 사역교회 담임목사, 다른 추천인 1명은 이전 사역교회 담임목사이어야 함) - 추천서는 1차 서류심사 후 선정되신 분에 한해서 추천인에게 본 교회에서 직접 연락함.
- 5) 신학대학원(M.Div) 졸업 및 성적증명서, 대학교와 대학원(해당되는 분) 졸업증명서, 목사 안수증명서 각 사본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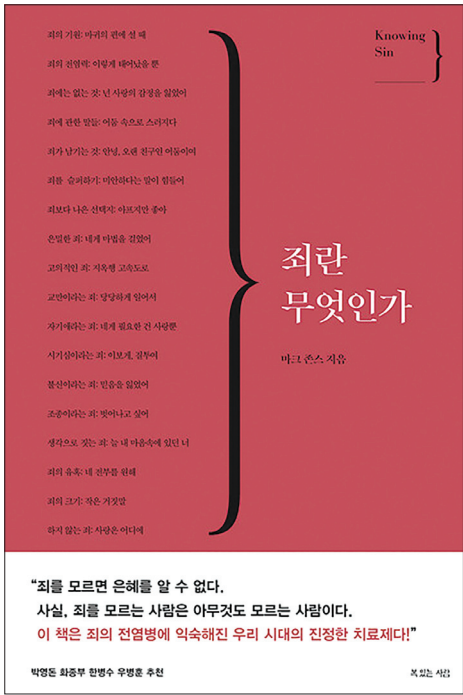
4. 지원 및 문의

- 1) 이메일 resume@sunhanchurch.com로 문의 및 지원해 주세요. 이메일로만 문의/접수를 받습니다.
- 2) 접수마감: 2023년 8월 27일까지
- 3)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비밀을 보장합니다.
- 4) 1차 서류 심사 후 면접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보해 드립니다.
- 5) 최종후보자는 원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선한목자교회

[크리스찬북뉴스서평] 죄를 아는 지식: Knowing Sin

어디서부터 죄이고, 어디까지는 죄가 아닌가?



품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어 죄를 '아는' 지식을 다루고 있다.

<죄란 무엇인가>는 두 가지 면에서 시작부터 신선했다. 첫째, 로자리아 버터필드가 서문을 썼다는 점이다. 전 시러큐스 대학교 영어학 및 여성학 교수이자 페미니스트, 레즈비언이었던 그녀가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누우치고 영적 소생과 부흥의 길을 만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이 책을 소개하는 인물로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둘째, 신학과 일상의 조화를 이루는 콘텐츠 구성이다. 총 1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구성은 '01 죄의 기원: 마귀의 편에 설 때', '02 죄의 전염력: 이렇게 태어났을 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제목과 일상적인 표현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실제로 내용을 다룰 때 마크 존스는 여러 가지 신학적 고찰과 설명을 풍부하게 제공한 뒤 항상 '적용'을 빼먹지 않고 제시했다. 들어가는 말에서 데이비드 클락슨의 말을 빌려 저자는 이 책이 우리 죄를 직시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한다. 죄를 자각한 자에게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달콤하게 임하기 때문이다.

존스는 이 책을 통하여 죄의 기원, 전염력 등을 다룬다. 원죄, 전적 타락을 청교도의 깊은 목상의 글들과 여러 신조를 활용하여 명확하고 풍부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은밀한 죄, 고의적인 죄, 교만, 자기에, 시기심, 불신, 조종, 생각으로 짓는 죄 등 현실적으로 삶에서 많이 일어나는 죄를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성경적인 치료법을 제시한다.

독자는 누구나 죄를 타고났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기 안에서 꿈틀대고 온갖 더러운 열매를 맺는 각종 죄가 크고 작은 모습으로 자기 영혼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누구나 죄의 유혹을 받고, 크고 작은 죄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 말고 금하신 죄를 범하는 것은 물론, 하라고 명하신 것을 하지 않는 죄는 어떠한가?

우리는 평생 무인도에 혼자 살아도 생각으로 짓는 죄를 비롯하여 수직적 관계에서 여러 가지 불평과 불신의 죄를 지을 것이고, 나아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할 것이 분명하다.

어떤 면에서 <죄란 무엇인가>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려가게 하는 책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 우리 체질을 아신다(시 103:14).

복음은 우리 죄를 낫날이 고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를 세워 온갖 흠과 티와 주름을 발견하게 하지만, 동시에 그 죄책을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께 찾는다. 우리를 위한 흠 없고 점 없고 티 없는 희생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주께서 그분의 거룩하신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고, 실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조금씩 죄의 실체에서 벗어나도록 도우신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어기는 죄를 멀리하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하라고 하신 것을 기쁨으로 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대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신다(빌 2:15).

죄를 다룬 탁월한 고전, 존 오웬의 <죄 죽이기>가 청교도 시대 그리스도인이 죄를 인식하고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죄와 싸우게 한 자원이었다면, 마크 존스의 <죄란 무엇인가>는 현대 그리스도인이 죄의 실체를 깨닫고 자신의 현실을 발견하며 유일한 해결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는 훌륭한 자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싸움은 결국 죄와의 싸움이 아니다. 악한 옛 성품, 악한 세상, 악한 영과의 싸움. 싸움의 대상을 영혼한 대상으로 삼아 시간을 낭비하고 전력을 상실하지 말고,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 원한다면, 매일의 삶 속에 나를 넘어지게 하고 주저앉게 하는 유혹의 실체를 발견하기 위한



©Pixabay

다면, 죄를 이기는 능력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과 성령을 통해 하시는 일을 발견하기 원한다면, 그래서 어떻게 죄와 싸울 것인지 견고한 전략을 세우기 원한다면 마크 존스의 <죄란 무엇인가>를 읽어라.

하나님께서 이 귀한 도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자기 자녀를 흠 없이 빛나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교회의 승리는 정치적 승리나 사회적 승리가 아닌 영적 승리라는 것을 우리 모두 분명히 알기를 바란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시어  
모든 사람에게 권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시니  
사도행전 11:23



When he arrived and saw what the grace of God had done, he was glad and encouraged them all to remain true to the Lord with all their hearts.

ACTS 11:23

마크 존스는 점점 조엘 비키를 닮아가는 것 같다. 함께 공저한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부흥과개혁사, 2015)에서 보여준 청교도 신학의 활용 능력을 독자적으로 써낸 책들에서 계속 탁월하게 드러내고 있다.

복있는 사람에서 출간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2017), <하나님을 아는 지식>(2018), 이레서원에서 출간된 <선행과 상급>(2018), <예수 그리스도>(2018), <조이북스에서 나온 <예수의 기도>(2020).

청교도 사상 전문가이자 개혁과 신학자로서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페이스 장로교회 목사이자 프리스테이트 대학교 신학부 연구교수로 섬기고 있는 마크 존스는 제임스 I. 패커를 있는 소장학자로 주목받으며, 청교도와 개혁 신학을 일상의 언어로 전달하는데 탁월하다.

특히 이번 <죄란 무엇인가>는 복있는사람에서 나온 Knowing 시리즈의 세 번째 작



**FI PLUMBING**  
213-434-8947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 FI PLUMBING

저희는 고객님의 편안한 생활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최고의 기술과 정직한 가격으로 고객님의 만족할때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ABOUT US:**  
24시간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플러밍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CONTACT INFO**

**CALL:**  
**213-434-8947**  
flplumbing2022@gmail.com

**MORE CONTACT INFO:**

 @FIplumbing  
 @FIPlumbing

서성록, 한 점의 그림 | 요제프 이스라엘스, 샤를 드 그루

# ‘지극히 작은 자들’ 섬긴 두 명의 화가

하늘나라, 죽은 후 먼 훗날 아나  
구원받은 사람 달라진 세계질서  
복음의 정신에 따라 살아갈 때  
그분 사랑과 성품 엿볼 수 있어

미술가들은 이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을까? 이 문제를 먼저 19세기 후반 네덜란드 화가 요제프 이스라엘스(Jozef Israëls, 1824-1911)의 작품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

네덜란드 흐로닝언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이스라엘스는 유년 시절 부친을 따라 상업에 종사하였으나, 화가가 되기로 결심한 이후 파리로 유학하여 그곳에서 미술을 배웠다.

때마침 파리에서는 프랑수와 밀레(Jean François Millet)의 전시가 열리고 있었는데 이때 이스라엘스는 밀레의 전시를 본 후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농부들의 실생활에 기초한 생동감 나는 사실주의는 그의 예술에 이정표가 되었다.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온 그는 평소 자신이 흥미해오던 밀레처럼 서민들의 삶에 주목하게 된다. 따뜻한 색감과 잔잔한 터치로 해변 풍경과 어촌의 가족상을 그렸으나 본격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던 차에 그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다. 이스라엘스는 하르렘(Haarlem) 인근 잔트포르트(Zandvoort)라는 마을에 머물며 요양을 하게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특히 마을의 어촌 공동체와 그들의 삶의 방식에 끌렸다.

현재 잔트포르트는 리조트가 들어서고 피서객들이 몰리는 명소가 되었지만, 19세기만 해도 위험스럽고 빈곤한 어촌에 불과했다. 이스라엘스는 그곳에 머무는 동안 가난한 어부들과 그 가족의 삶을 가까이에서 엿볼 수 있었고 그들에 대한 공허의 감정을 품게 되었다.

부유한 집안에서 성장해 남부러울 것없이 살았던 이스라엘스는 잔트포르트 어부들의 비참한 생활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이를 공감의 언어로 전달하게 된 것이다. 거기서의 생활은 그의 인생과 예술을 송두리째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그때부터 그는 진정으로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 찬 새로운 표현에 사로잡혔다

이스라엘스의 예술 세계에 돌고우가 되어준 <물에 빠진 사람을 나르는 어부들>(1862)은 어부들의 삶을 리얼하게 펼쳐놓고 있다. 멀리 난파당한 배가 떠 있고 화면 하단에는 여러 사람들이 시신을 물으로 옮기는 비극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 화면은 남편을 잃고 실의에 빠진 여인과 영문을 모른 채 엄마손에 붙들린 두 아이, 뒤를 이어 시신을 안고 걸어 나오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번에는 평범한 농부가족을 모티브로 한

그림을 보자. <식탁에 둘러앉은 농부가족>(1882)은 호화스럽지는 않지만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있다.

식탁에 놓인 음식이 빵과 스프 정도가 전부이고, 가재도구도 변변한 것이 없는 지극히 가난한 가정이다. 아내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중인데 아이들이 배가 고프지 음식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맞은편에 앉은 남편은 약간 지친 기색으로 멍한 눈빛을 하고 있다. 불기가 없는 탓인지 집안 분위기는 더욱 쓸쓸해 보인다. 이처럼 이스라엘스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나타내면서 그들과 밀착하지 않고는 도달할 수 없는 예술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스의 예술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약자들에 대한 관심일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감상자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육안으로 본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것을 본 장면에 매료되기를 바란다.”

그의 시선에는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들어왔고, 이스라엘스는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삶의 실재를 속속들이 담아냈다. 기밀 곳 없는 타자를 품는 일이야말로 그의 예술에 있어 가장 본질적이며 핵심적이다.

불우한 사람들에 주목하였던 또 한 명의 화가로 샤를 드 그루(Charles de Groux, 1825-1870)가 있다. 프랑스 태생이지만 오랜 벨기에 체류로 ‘벨기에 화가’로 분류되는데, 그가 평생 관심을 기울인 것은 사각지대의 사람들이었다.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커피를 갈아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 실직하여 무기력한 사람, 어둔 방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여인, 엄마를 살려내라고 보채는 어린 아이들, 저널리스트를 울리는 가난한 가족 등 찰스 드 그루는 고상하고 우아한 스타일과 주제와 단절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주목하였다.

그런 인물을 주제로 삼은 데는 사회적인 원인이 작용하였다. 19세기 벨기에는 상당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의 먹구름이 뒤덮였는데, 대부분 주민이 그동안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부로 살아왔으나 산업혁명이 가져온 급속한 산업화는 벨기에 사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많은 농촌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했으나 그들은 열악한 노동조건, 낮은 임금, 긴 노동시간에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요인들은 많은 벨기에 사람들에게 심각한 생활고를 초래했다.

이런 시기에 나온 것이 <퇴거>(the Evic-



요제프 이스라엘스, 익사한 사람을 나르는 어부들, 캔버스에 유채, 129X244cm, 1862, 런던 내셔널 갤러리 소장.



샤를 드 그루, 퇴거, 캔버스에 유채, 1850-1870년경, 97x142cm, 앤트워프 왕립미술관 소장.

tion, 1850-1870년)이다. 이 작품은 임대료를 내지 못해 집을 떠나야 하는 한 가정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가정의 어깨에는 큰 짐이 들려져 있고 아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린아이를 안고 있다.

가녀린 소녀가 아빠를 올려다보며 ‘어디로 가나’고 묻지만 아빠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다. 입구를 막아선 집주인이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이들을 쳐다보고 있다. 나무 한 포기조차 없는 주위의 황량함이 이들의 처지를 한층 안타깝게 한다.

가난한 이들의 빛이 된다는 것은 창작자 소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측면이다. 어떤 작가의 눈에는 목격되지 않았으나 그들의 눈에는 이들이 들어온 것이다. 그들이 느낀 것에 공감하고 이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은 위대한 작가들이 지닌 비밀 중 하나였다.

우리 주변에도 잔트포르트 어민이나 벨기에 주민 같은 가난한 이웃들이 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생활고로 힘겨워하고 심지어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처지까지 떠밀리기도 한다. 조금만 주위로 눈을 돌리면 네덜란드 화가들이 만났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 제자들이 한 덩어리의 빵을 부풀리는 ‘누룩’이 되어야 했던 것은 그분의 나라가 죽은 이후에만 성취되는 먼 훗날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스도의 하늘나라 선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하는 달라진 세계질서를 요구하는 외침이었다. 이것이 우리 세계를 위한 예수님의 좋은 소식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정신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분의 사랑과 성품을 엿볼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월터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의 말처럼, “하나님은 자기 존재의 안위가 아니라 참 대화에 몰두하시며 이 대화는 타자의 안녕을 되살리고 영원한 찬가를 부르게 해준다.”

타자와의 교감에서 비롯되는 행동은 비록 화려한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하나님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하게 해준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서성록 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강사

1. 저녁집회 - 허봉기 목사 (찬양교회 은퇴)
2. 특강강사 - 류응렬 목사, 권혁빈 목사, 김태일 목사, 유원식 회장, 백신종 목사, 심창섭 목사, 김형주 목사, 조명재 목사, 이영자 사모, 유성실 사모, 백은경 사모
3. 특별순서 - 지나 자매 (유튜브 채널 Gina) 집회, 볼티모어 한국교회 역사탐방 (아펜젤러 선교사 파송교회,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 박에스터 묘소)



허봉기 목사

## NEXT 이미준 2023 포럼

주제 이민교회  
미래와 창조적 목회

일시 : 2023년 10월 3일(화) - 6일(금)

장소 : 벤엘교회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BWI 공항)

등록비 : 개인 300불 (부부 400), 숙식 및 도서선물 포함  
마감일 : 8월 31일 (선착순 100명),  
9월 1일 이후 개인 350불 (부부 450)  
문의 : 조명재 목사  
(nextemijoon@gmail.com  
Tel. 310 413 5333)



지나 자매 (유튜브 채널 G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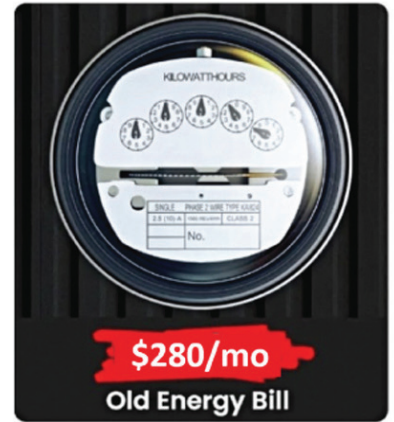


#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70% Tax Benefit

전기세가 11달러?!

2023년  
대박



100%  
Made in  
USA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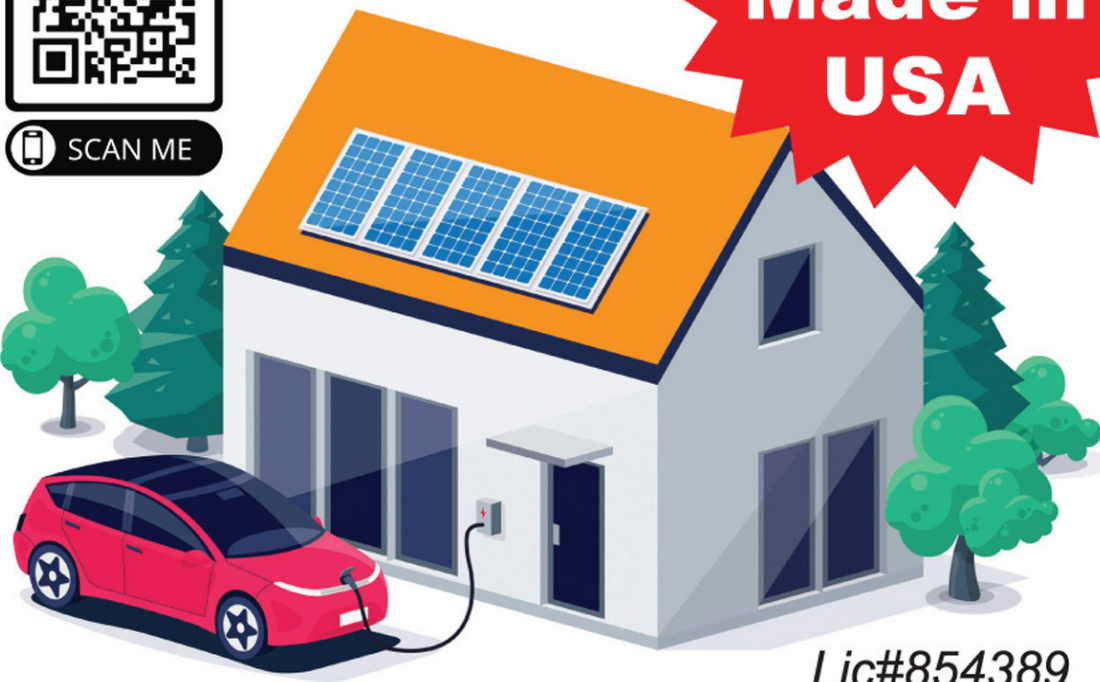
##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 최고 성능의 패널 사용
- ✔ Zero Down Payment
- ✔ 전기료 50~90% 절감
- ✔ EV Car Outlet Free



SCAN ME



Lic#854389

\*\*\* 전기세 50~90% 절감 \*\*\*

## Why BTS Solar?

(왜 BTS 솔라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 ✔ 전기세 ~~30~50%~~ 50~90% 절감효과
- ✔ Zero Down Payment
- ✔ 최고 성능의 안정적인 패널
- ✔ 모든 제품군 최장기간 Warranty
- ✔ 남가주 전 지역 최단기간 설치

### • 태양광 설치 효과

태양광 설치 시 얼마나 많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첫째, 얼마나 많은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지, 둘째, 패널을 설치할 지붕의 방향과 각도가 태양광을 받기에 얼마나 적절한지 등에 달려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현장 실사하듯 에너지 효율 체크합니다.

### • 저렴한 맞춤형 파이낸스

별도의 담보도 필요없이 크레딧으로만 설치되며 가장 저렴한 Payment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설치 후 1년 동안은 100% 태양광 설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년 후부터 Payment가 시작됩니다. Payment가 시작되어도 현재 전기료의 70~80%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 안정적, 효율적 제품으로 신속 정확한 시공

한국인 팀장이 주축이 되어 고객과 소통하며, 최고의 설치 노하우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효율적인 제품만을 선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공합니다.

[www.btssolardesign.com](http://www.btssolardesign.com)

TALK BTSSolar

213.500.8000  
714.702.0151

CELLS PARTNER

-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세요.
1. 문의 전 전기세 고지서를 준비해주세요.
  2. 전기세 고지서 사진을 찍어서 Text Message 혹은 카톡 주세요.
  3. 메시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